

최첨단 레이저 제판시스템 국내 최초 도입

동남아 수위 목표로 제판업계 신기술 개발 주력



▲ 김도원 대표이사

각종 산업에서의 기술적인 평준화와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품의 외적요소인 포장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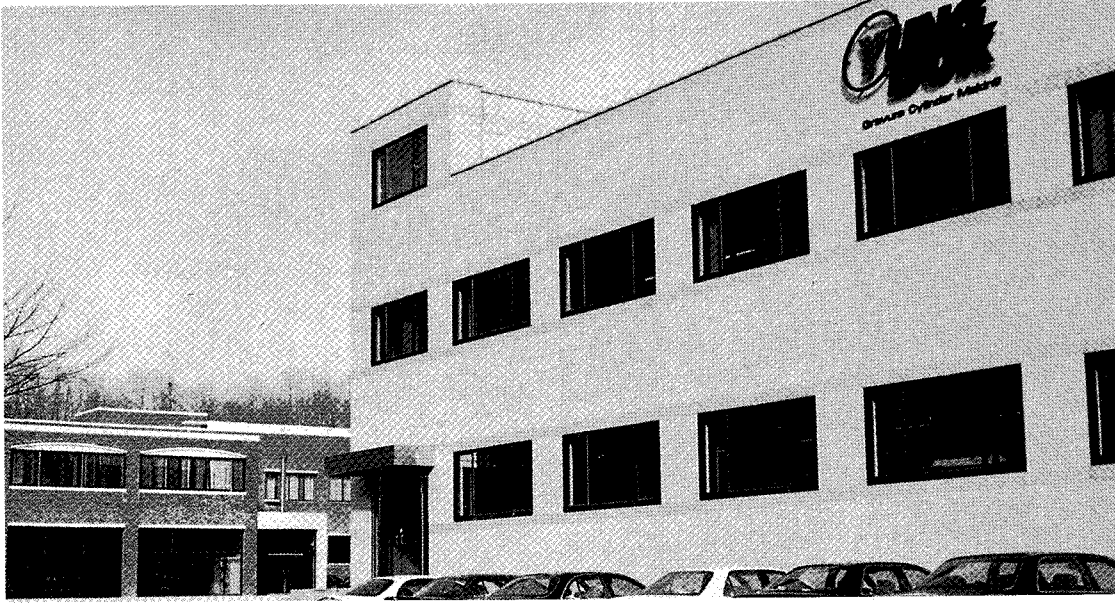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포장과 다양하고 눈에 띄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이와 동시에 환경친화성 포장재로서의 요건을 갖춘 포장이 요구되면서 포장산업의 기술적인 발전은 더욱 가속을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라는 말과 함께 찾아온, 흔히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포장산업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적극적인 기술력 향상에의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 또한 포장산업이기도 하다.

지난 96년에 설립된 (주)웅덕산업은 연포장산업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판업계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 포장산업의 이러한 노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주목받는 업체이다.

한 알루미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 (주)웅덕산업 전경(앞 건물이 공장 및 본사, 뒤가 복지관)



▲ 컴퓨터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Full Automatic Laser Stream System(우측은 레이저를 이용한 롤러자동직경측정기).

김도원 대표이사가 지난 80년도 초 국내 최초로 부메랑 제판시스템을 도입, 연포장 인쇄의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던 경험을 모태로 한 (주)용덕산업은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에칭시스템과 헬리오시스템, 그리고 국내 최초로 도입한 레이저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각 사마다 적정한 기술을 이용,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정확한 납기일 준수와 정밀한 제품의 생산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다.

김도원 대표이사는 “포장산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포장산업,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제판업계가 일본의 수준을 추월한다는 것이 근간에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동남아 내에서 2위자리를 고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던 중 Full Automatic Laser Stream System을 도입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설비들과 함께 적용, (주)용덕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주)용덕산업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밝혔다.

(주)용덕산업이 도입한 Full Automatic Laser Stream System은 저심도에서 좋은 인쇄효과를 내며 인쇄 후 잔류용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레이저 제판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국내첨단기술이라고 알려진 헬리오시스템보다 약 10~15% 정도 잉크 절감효과가 있어 환경친화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

식품의 경우 유사제품이 많기 때문에 포장지에서의 차별화가 중요한데 “Full Automatic Laser Stream System은 0.02mm의 선에 대한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매우 정교한 국내 식품포장의 기술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권소규 전무는 타사의 경우 마지막 크롬연마과정의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는데 비해 (주)용덕산업의 경우에는 자동 크롬연마기를 갖추어 본 인쇄작업시 별도의 수동

폐퍼롤러표면 연마가 필요없게 되어 인쇄준비 시간이 7도기준 약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수동연마의 위험요소를 배제, 안전관리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즉, 기존 시스템들이 줄자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원의 크기를 재어 오차율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반면, 이 마이크로 자동측정 연마기는 전 롤러의 외경차가 없게 했으며 롤러의 자동연마로 고속의 인쇄가 가능해져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용덕산업은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 외에도 자체적으로 2대의 인쇄교정기를 갖추고 있어 출하 전 자체적으로 완전검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용 롤러가 반품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주)용덕산업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일반적인 제판공장답지 않은 깔끔함과 공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내부구조였다.

롤러의 이동에 용이하도록 모든 출입문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단거리의 경우 모두 웨이트 밸런스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크롬연마실을 중심으로 에칭시스템과 헬리오시스템, 그리고 레이저시스템실을 배치해 놓아 작업동선의 효율성을 더했다. 또한 넓은 공간의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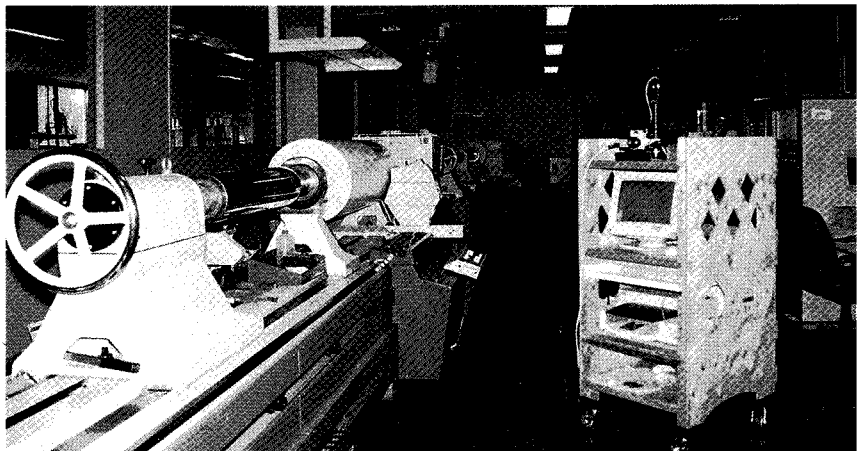
보를 통해 전 공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설계해 놓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완벽한 정화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 폐수는 물론 크롬도금실에서조차도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주)용덕산업은 학벌보다는 인성을 우선시하는 직원선발기준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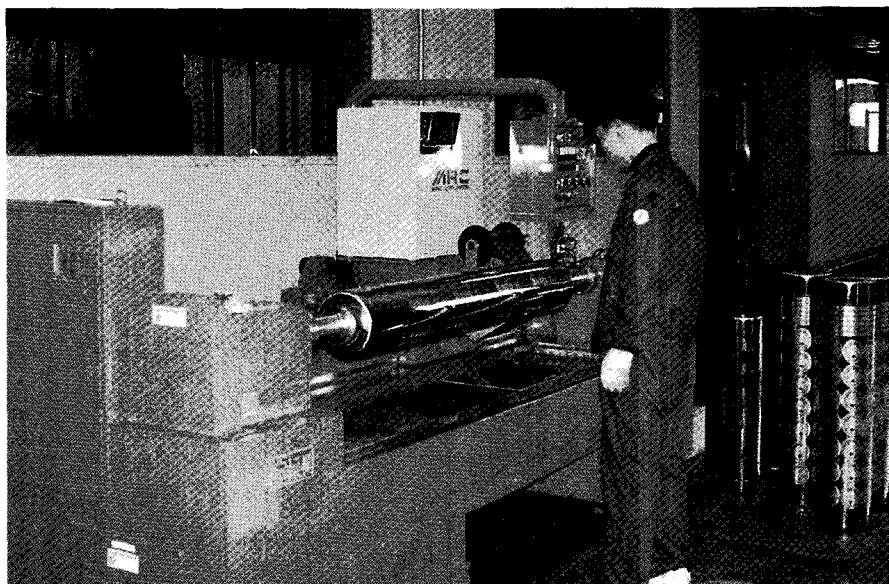
김 사장이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직원의 인성에 대한 부분은 학벌 위주의 현 사회체제 내에서 능력 위주의 직원 선발과 회사와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쇄신이라는 하나의 교훈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주)용덕산업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인성과 함께 최첨단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자체 품질교육과 정보화 산업교육을 통해 제판업계의 최고의 기술자로 거듭나고 있다.

연포장의 부수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그 발전의 속도도 항상 그 뒷전으로 밀려지던 제판업계에 대해 김 사장은 "직원 모두에게 항상 사명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20여년이 넘도록 제판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인



▶ 개방된 내부에 최신설비로 설계된 헬리오실



◀ (주)용덕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크롬연마기

식하게 된 식품포장에서의 제판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라며 포장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진 직원들에 의해 첨단 자동화 설비와 기술을 확보, 오차율을 줄이고 정밀한 제판작업을 선도하겠다는 (주)용덕산업의 목표를 확실히 했다.

포장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판을 비롯한 부수적인 산업이 스스로, 그리고 동시에 발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사장은 국내 최대의, 그리고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주)용덕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내보이고 있었다.

오는 4월 초에 국내 제판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 개업식을 앞두고 사내 단장에 여념이 없는 (주)용덕산업은 제판공정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공장의 배치와 함께 사내 복지시설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1천 7백여평 남짓의 공간의 한 옆에 2층 규모로 지어진 복지관에는 전 직원이 함께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식당과 함께 탁구대 등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여

유있게 마련해 놓고 있어 직원들 스스로가 제판업계의 최고라는 자부심과 함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 복지관에는 또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고 복지관 앞마당은 차체 주차는 물론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운동공간으로 이용할만큼 여유롭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보다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좀 더 정확한 제품의 생산과 납기일을 준수함으로써 3D업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연포장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김 사장의 말이 인상깊게 남은 (주)용덕산업의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긴 길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기운차게 일어서는 우리 포장산업의 밝은 미래에 대한 여운으로 남아 경쾌하기만 했다. [K]

윤지은 기자